금기에 대한 반기,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메도루마 슌의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를 중심으로 *

조정민

1. '천황'이라는 이름의 금기

금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금기의 대상을 거역하거나 반역을 도모하려는 욕망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금기에 대한 욕망을 문학만큼 진지하게 상상한 장르도 드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금기 영역인 '천황'에 대해 전후 일본문학과 전후 오키나와문학이 각각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살펴

조정민(趙正民) 현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교수. 부경대학교 일어일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규슈대학 비교사회문화연구학부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근현대문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는 국민국가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를 사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만들어진 점령서사: 미국에 의한 일본 점령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동아시아 개항장 도시의 로컬리티』(편저), 『오키나와 문학의 힘』(공저)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7-361-AL0001).

보고자 한다. ‘전후’로 시간을 한정한 이유는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가 상상하는 천황(제)는 서로 다르지만, 양자 모두 전후민주주의와 상징천황제의 모순 사이에서 자신들의 몸에 기입된 천황(제)를 문학적으로 해체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천황이라는 금기로부터의 탈주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60년대 우익 청년들이 일으킨 아사누마 사건(淺沼事件, 1960. 10. 12)과 시마나카 사건(嶋中事件, 1961. 2. 1)은 전후민주주의와 초국가주의가 혼재하는 전후 일본의 이중적인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으로, 이 두 사건은 천황이 일본인의 몸과 마음을 강력하게 포획하는 장치임을 더욱 뚜렷하게 전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천황(제)이라는 심상적 질곡을 뛰어넘어 체제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고 그로부터 탈주하려 했던 두 문학자 후카자와 시치로(深沢七郎)와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郎)는 우익 청년들의 테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면서 전후 일본의 문학 공간에 더는 천황을 등장시킬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이고 말았다.

그 뒤 천황(황태자)이 문학 공간에 다시 등장한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다. 오키나와의 작가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이 쓴 「평화거리로 불리는 길을 걸으며」(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新沖繩文学』1986. 12. 이하 ‘평화거리’로 약칭)는 패전 후 오키나와를 방문한 황태자 부부에게 한 치매 노인이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는 일본화라는 강력한 훈육 과정과 치매를 앓고 있는 예외적인 몸이 일으킨 감시 체제의 와해가 동시에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이후 본토의 문학 공간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천황을 1980년대의 오키나와가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전후 일본문학과 전후 오키나와문학에서 보이는 천황의 표상과 그 정치·사회적인 맥락을 짚어보고 지금 다시 메도루마의 작품을 읽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꿈속에서조차 불가능한 이야기

1960년 11월 잡지 『중앙공론』(中央公論)에 발표된 후카자와 시치로의 소설 「풍류몽담」(風流夢譚)은 주인공 ‘나’가 꿈에서 본 소요 사태를 매우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버스정류소에 있던 ‘나’는 사람들로부터 도쿄 시내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버스를 타고 황궁에 도착해보니 황태자와 황태자비는 ‘나’가 쓰던 도끼로 목이 베이기 직전에 있었다. ‘나’의 도끼가 더러워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찰나, 황태자 부부의 목은 베이고 목이 잘린 두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쇼켄 황태후(昭憲皇太后)와 ‘나’는 언제부턴가 고슈(甲州) 사투리로 말싸움을 벌이고 심지어 서로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얼마간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악대가 연주하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불꽃놀이가 시작된다. 그만 죽어도 미련이 없다고 생각한 ‘나’는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하고 만다. 내 머리 안에는 구더기가 가득했다.

도심의 폭동 속에서 황태자 부부의 목이 베어 나가고 나머지 몸뚱어리는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장면은 꿈에서 본 광경이라 해도 충격적인 묘사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작중에 실명이 그대로 드러난 히로히토(裕仁) 천황과 미치[1959년 아키히토(明仁) 황태자와 결혼한 쇼다 미치코(正田美智子)의 애칭], 쇼켄 황태후는 상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황실의 모습을 마치 현재와 실재의 의미망 속에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고, 또 쇼켄 황태후가 사투리로 욕하는 장면은 철저하게 박제된 인물로 등장했던 기존의 황족의 모습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었다. 때문에 이 작품은 궁내청(宮内庁)의 항의(황실에 대한 명예 훼손, 1960. 11. 29)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해당 작품을 게재한 잡지사는 우익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61년 2월 1일 중앙공론사의 사장 시마나카 호지(嶋中鵬二)의 자택에 대일본애국당 소속 극우 청년들이 침입하여 사장의 부인과 가정부를 피습해 가정부가 사망하는 시마나카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중앙공론사는 2월 6일 전국지에 “게재하기에 부적합한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간(公刊)되어 황실 및 일반 독자들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는 사죄문을 발표하고, 1961년 3월호 『중앙공론』에도 같은 취지의 사죄문을 게재한다. 니시카와 나가오(西川長夫)가 지적한 것처럼 피해를 입은 언론사는 테러리즘에 항의하는 대신 사죄를 하였으며, “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글의 책임을 작가나 편집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언론계에 금기가 존재함을 자인했다.² 다시 말해 「풍류몽담」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후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이념적 가치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풍류몽담」 필화 사건과 시마나카 사건을 두고 구노 오사무(久野収),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등의 지식인들은 반사회적이고 인정받기 힘든 소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음을 공통으로 지적했지만, 그 주장의 정당성에 비해 내용은 다소 추상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이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천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신 논의의 향방을 ‘테러리즘과 표현의 자유’로 이행시키면서 천황과 소설의 문제를 무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검열하는 자주규제에 따른 결과였다.³

자주규제를 한 것은 작가 후카자와도 마찬가지였다. 「풍류몽담」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이 소설은 ‘꿈(夢)과 ‘이야기(譚) 형식에 기댄 초현실주의

1 西川長夫, 『日本の戦後小説: 廢墟の光』, 岩波書店, 1988, 315쪽에서 재인용.

2 西川長夫, 『日本の戦後小説: 廢墟の光』, 316쪽.

3 根津朝彦, 『戦後『中央公論』と『風流夢譚』事件: 「論壇」・編集者の思想史』, 日本経済評論社, 2013, 180쪽. 시마나카 사건을 계기로 황실에 대한 중앙공론사의 자주적인 검열은 더욱 강화된다. 중앙공론사는 사상의 과학연구회(思想の科学研究会)가 편집하는 잡지 『사상의 과학』(思想の科学)이 1962년 1월호에서 천황제 특집을 꾸미자 이를 일반적으로 발간 정지하여 폐기 처분했고, 그 와중에 중앙공론사가 공안 조사청 직원에게 미리 잡지를 보여주고 검토 받은 것이 드러나 사상의 과학연구회 주요 집필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결국 잡지 『사상의 과학』은 중앙공론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주 발간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고, 중앙공론사의 논조는 체제비판적인 집필진이 주요 논객이던 과거와는 달리 보수 논객의 글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根津朝彦, 『戦後『中央公論』と『風流夢譚』事件: 「論壇」・編集者の思想史』, 189~192쪽).

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후카자와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잘못을 눈물로 사죄하는 기자회견(1961. 2. 6)을 열고 우익의 습격을 피해 호텔에 잠시 몸을 숨겼다가 1965년까지 약 5년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방랑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해당 작품에 대한 복간 의뢰를 일절 거절했고 사후에 간행된 후카자와 시치로 전집(『深沢七郎集』全10卷, 筑摩書房, 1997)에도 이 작품은 수록되지 않았다.

한편 시마나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 1960년 10월 12일에는 17살의 우익 청년 아마구치 오토야(山口二矢)가 일본사회당 당수 아사누마 이네지로(浅沼稻次郎)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한 아사누마 사건이 일어난다. 아사누마는 당시 안보투쟁의 최전선에서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내각의 총 사퇴를 주장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에는 일본 3당 대표자 합동 연설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던 중이었다. 연설회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던 탓에 피습 장면은 전국으로 전파를 타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본 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을 일으키고 약 한 달이 지난 뒤, 아마구치는 ‘천황폐하 만세, 칠생보국’(天皇陛下万才七生報國)이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아마구치의 왜곡된 천황 숭배는 작가 오에 겐자부로의 작품 「세븐틴」(セブンティーン)(『文學界』, 1961. 1. 2)에 동시대적으로 재조명되었다. 특히 1961년 2월 『문학계』(文學界)에 발표된 「정치 소년 죽다: 세븐틴 제2부」(政治少年死す: セブンティーン第2部)는 한 우익 소년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천황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과정을 다룬 것으로, 작가는 소년이 성을 매개로 천황과의 동일시를 추구하면 할수록 ‘초국가주의’라는 정치성이 짙게 표면화됨을 비판적으로 그렸다. 다시 말해 오에는 유약한 전후민주주의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초국가주의가 아사누마 사건과 같은 아이러리를 배태시켰다고 보았던 것이다.⁴ 이 작품을 발표한 이후 오에는 우익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해당 작품을 게재한 잡지사는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3월호에 사과문을 실었다. 그리고 훗날 간행된 오에 겐자부

4 大江健三郎·すばる編集部, 『大江健三郎·再発見』, 集英社, 2001, 66~67쪽.

로의 소설집(『大江健三郎小説』全10巻, 新潮社, 1996)에 「정치 소년 죽다: 세븐틴 제2부」는 실리지 못했다.⁵

1960년대 초에 연이어 일어난 우익 테러 사건과 출판사의 자기 검열적 태도는 전후 일본문학이란 무대에 겨우 등장하기 시작한 천황에 대해 그 어떠한 접근도 불가능하도록 문학 공간을 압전시키고 말았다. 그것은 전쟁과 패전, 그리고 점령으로 이어지는 극단의 혼란 속에서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물으며 대결하려 했던 1950년대의 담대한 시도⁶로부터 역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3. 전후 오키나와와 천황의 조우

「풍류몽담」과 「세븐틴」이 발표되고 약 25년이 지난 1986년, 오키나와에서는 이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천황가를 문학 속에 등장시킨다.⁷ 오키나와 출신 작가 메도루마 슌이 쓴 「평화거리」가 바로 그것이다.⁸ 이 작품은 1983

- 5 1996년에 출판된 오에 겐자부로의 소설집보다 먼저 간행된 『大江健三郎全作品1』(오에 겐자부로 전 작품 1)(新潮社, 1966)의 「자필연보」에 따르면 「政治少年死す: セブンティーン第2部」가 수록되지 않은 것은 오에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377쪽).
- 6 1952년 5월 1일,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總評議會)가 ‘인민광장 탈환’을 외치며 황궁 앞 광장까지 이동해 집회를 연 것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들은 당시 황궁 주위를 지키던 5천여 명의 경찰들과 치열하게 대립했고 결국 경찰의 발포로 2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 7 물론, 오키나와에서 천황에 대한 문학적 논의를 메도루마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문학’을 염두에 둔다면 본토 복귀 전후에 아라카와 아키라(新川明)가 쓴 『反國家の坵区』(반국가의 흉악지역)(現代評論社, 1971)과 『異族と天皇の國家』(이족과 천황의 국가)(二月社, 1973) 등은 오키나와와 본토·천황의 거리를 보다 치열하게 고민한 저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는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차이 의식(差意識)=거리감을 기층으로 하면서도 급속하게 천황제 국가 ‘일본’에 편입된 오키나와는 완전히 천황제 문화(의식)에 포섭되어갔고, 본토의 차별의식에 대응하듯이 오키나와 내부의 언론 기관이나 민권 운동, 학문 등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인 동화지향=황민화지향을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키나와(인)은 일본 가운데서도 가장 농밀하게 천황제 사상=일본국민의식에 몰든 지역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新川明, 「『非國民』の思想と論理」, 『反國家の坵区』, 現代評論社, 1971, 130쪽). 한편, 오키나와에서의 천황(제) 논의는 대부분 지식인이나 정치운동가, 노동운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서민들의 의식이나 감성을 다룬 논의는 거의 없었다. 오카모토 게이토쿠(岡本恵徳)는 문학적 체제로 다루기 힘든 천황에 대한 서민의 심상을 메도루마의 「평화거리」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岡本恵徳, 『現代文学にみる沖繩の自画像』, 高文研, 1996, 261쪽).
- 8 국내에도 소개된 메도루마의 대표작은 「물방울」(水滴, 1997), 「뉘들이기」(魂込め/まぶいぐみ, 1998)

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오키나와 나하(那覇) 시민회관에서 열렸던 헌혈 운동추진전국대회에 황태자 부부가 참석한 것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황태자 부부의 오키나와 방문을 앞두고 경찰 당국은 두 사람의 동선을 중심으로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평화거리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휴업을 강제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우타(ウタ) 할머니에게는 외출을 금지하는 등, 개인의 신체와 일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한다. 오키나와 북부 안바루(山原)가 고향인 우타는 전쟁 중에 남편과 큰아들을 잃고 전후에는 둘째아들 가족과 함께 나하에 살며 생선 장사를 해왔다. 한때는 폭력단에도 맞설 정도로 강단이 있던 그녀였지만 치매를 앓는 지금은 가족과 주변 상인들에게 성가신 존재로 비쳐진다. 그러니까 평화거리의 평화를 수호하던 우타가 지금은 평화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불온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치매를 앓는 우타의 몸과 평화거리의 상인 모두를 과잉 규제, 진압하려는 당국의 폭력은 소설의 제목처럼 평화거리를 ‘평화거리로 불리는’ 데 그치게 할 뿐이다. 거기에서는 진정한 ‘평화’의 편린도 발견하기 힘들다.

한편 경찰 당국의 집요한 강요에 못 이긴 둘째아들은 황태자 부부의 오키나와 방문 당일에 어머니 우타를 집안에 감금하고, 여기에 불만을 품은 손자 거주(カジュ)는 가족들 몰래 자물쇠를 열어 그녀를 탈출시킨다. 집 밖으로 나온 우타는 황태자 부부를 환영하는 인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두 사람이 탄 차에다가가는 자신의 대변을 차창에 내던진다. 창문에 묻은

등으로, 특히 1997년 상반기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물방울」은 비평가나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그에 반해 「평화거리」는 “천황제 고발”이라는 강한 의지가 전면에 드러나 소설 자체가 단조로운 이데올로기에 자족해버렸다”는 혹평을 받은 바 있다(新城郁夫, 『沖繩文学という企て: 葛藤する言語・身体・記憶』, インパクト出版会, 2003, 129~130쪽). 그러나 작품의 평가와 수용 경향을 차치하고, 천황을 매개로 본토와 투쟁하고자 한 메도루마의 의도는 훗날 간행되는 단행본이나 작품집에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메도루마는 2003년에 간행된 단편소설집의 표제작으로 「평화거리」를 두었고, 또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에 참석한 황태자 부부에게 화염병 테러를 감행하려 했던 한 남자를 회상한 소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面影と連れて/うむかじとうちりてい, 1999)를 2013년에 발간된 『目取真俊短篇小説選集』(메도루마 순 단편 소설선집3)의 표제작으로 두었다. 지금도 기지 반대를 위해 헤노코(辺野古)의 바다와 다카에(高江)의 숲에서 저항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메도루마에게 이들 작품은 본토의 정치에 굴종하지 않기 위한 무겁고도 절박한 외침이기도 한 것이다.

‘황갈색의 손도장’은 마치 ‘두 사람(황태자 부부)의 얼굴에 찍힌 것 같’은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그 뒤 고향 안바루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우타는 거주 옆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

오키나와에 거주하는 치매 할머니 우타와 황태자 부부가 조우하는 장면에서 메도루마는 양자를 인분으로 매개한다. 언어와 기억을 반쯤 잃어버린 치매 노인의 인분 투척 행위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통제가 불가능하기에 더욱 급작스럽고 당혹스럽다. 천황가의 위엄과 존엄을 순식간에 부정하는 우타의 행동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실재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에 그녀의 행동이 천황가의 권위 실추로 곧장 이어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즉 우타의 행위를 치매 노인의 병리적인 행동이라고 해석한다면 거기에서 ‘저항’의 의미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치매’라는 장치는 천황가의 존엄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이자 보루일지도 모르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에서 우타의 행동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녀의 ‘폭력’이 오키나와의 전쟁과 전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 경험이나 전사자 위령, 복귀 이후의 오키나와의 정체성 정치 등, 오키나와를 둘러싼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상황이야말로 그녀의 행위의 근간인 것이다. 전쟁과 전후를 관통하는 우타의 신체는 오키나와의 메타포임이 분명하다.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먼저 우타(오키나와)가 경험한 전쟁과 전후를 천황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이 오키나와를 25년이나 5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배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는 쇼와(昭和) 천황의 이른바 ‘오키나와 메시지’(1947)는 전후 일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오키나와를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⁹ 천황제의 존속과 본토 방위를 위해 오키나와 전투를 감행하고 패전 후

9 進藤榮一, 『分割された領土: もうひとつの戦後史』, 岩波書店, 2002, 66쪽.

에도 오키나와를 적극적으로 미국에 헌납한 ‘천황 외교’¹⁰는 결국 여러 겹의 지배와 폭력에 결박된 오늘날의 오키나와를 초래하고 말았다. 전쟁과 점령이라는 연속된 폭력을 오키나와에 강제한 쇼와 천황은 패전 이후 오키나와 땅을 밟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¹¹

이후 오랜 공백을 사이에 두고 1975년 7월 17일 쇼와 천황의 장남 아키히토(明仁) 황태자[헤이세이(平成) 천황]와 황태자비는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 개최식에 참석하기 위해 오키나와를 찾았다. 1975~1976년에 열린 국제해양박람회는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이 제안하여 1971년에 각의 결정된 프로젝트로,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했다. ‘바다: 그 소망스러운 미래’(海: その望ましい未来)라는 주제로 열린 이 박람회는 오키나와를 ‘새로운 해양문명의 발상지’로 규정하며 지역 정체성을 창조하고, 오키나와의 산업 진작과 사회 인프라 정비를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¹² 패전 이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후를 살았던 일본과 오키나와는 공공시설이나 사회자본, 복지와 같은 행정적 측면에서 단절과 공백을 서둘러 메울 필요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도 본토와의 일체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어쩌면 더욱 긴급하고 지난한 과제는 후자일지도 몰랐다. 국제해양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미디어를 통해 인기를 구가하던 황태자 부부를 명예 총재로 맞이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¹³ 본토와 오키나와의 통일을 구현하는 데

10 豊下橋彦, 『安保条約の成立: 吉田外交と天皇外交』, 岩波新書, 1996; 豊下橋彦, 『昭和天皇・マッカーサー会見』, 岩波現代文庫, 2008 참조.

11 1921년 3월 황태자 신분으로 구미 방문 도중에 오키나와를 방문한 적은 있었다.

12 일본 정부는 1974년에 본토에 복귀한 오키나와에 대해 행정과 제도 면에서 본토와의 통일을 서두르는 한편, 문화적으로는 ‘오키나와다움’을 전경화시키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국제해양박람회 개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92년에 정전(正殿) 공사를 완료하여 일부 공개한 슈리성(首里城) 복원도 같은 취지의 사업이었다. ‘오키나와다움’이라는 문화 코드가 커다란 경제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를 오키나와의 기초 사회자본 정비의 계기로 기대하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환경 파괴나 낙도의 파소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도 있었다. 실제로 국제해양박람회가 끝난 뒤 오키나와에는 후자의 주장대로 도산, 실업과 같은 후유증이 오랫동안 남았다(鹿野政直, 『沖縄の戦後思想を考える』, 岩波書店, 2011, 147~148쪽).

13 1959년 아키히토 황태자와 결혼한 쇼다 미치코는 ‘평민’ 출신이었다. 황태자와 ‘평민’ 여성의 결혼은 많은 이슈를 낳았고, 라디오와 TV 매체는 두 사람을 마치 연예인과 같은 친근한 존재로 포장하는 데 일조했다. 특히 미치코 황태자비를 둘러싼 ‘밋치 붐’은 천황(가)에서 연상되는 전쟁과 정치 이미지를 표백시켜 대중문화적 존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대중천황제’는 천황을 우상화하는 천황

황족만큼 적절한 장치는 없었던 것이다.¹⁴

그러나 천황가의 오키나와 방문은 일본과의 통섭의 효과보다는 균열의 효과를 부르고 있었고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절대적 차이를 현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황태자의 방문을 앞둔 오키나와에서는 ‘경제’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정치’가 커다란 이슈로 등장하며 노골적으로 치안 문제가 드러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¹⁵ 그것은 단순히 황태자의 오키나와 방문을 반대하는 목소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황태자에 대한 습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다.¹⁶ 당일 오키나와에서는 오키나와 현 경찰 1,300명과 본토에서 지원 온 경찰 2,400명이 완전 무장하여 엄중한 경비를 썼다. 그럼에도 히메유리의 탑(ひめゆりの塔)에 현화하고 설명을 듣던 황태자 부부에게 두 남성이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만다. 이들은 황태자 부부의 일정을 파악하고 동굴에 잠복해 있다 화염병 테러를 시도한 것이었다.

시내에서는 완전무장한 경찰이 1m 간격으로 늘어서고, 산간 지역에서도 1km 내외의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된 감시 체제 속에서 황태자 부부의

제의 새로운 정신지배 체제로, 그것은 결국 절대군주로서의 천황을 문화 개념으로 되살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4 오키나와의 문필자 오시로 다쓰히로(大城立裕)는 1971년의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 구상과 진행을 주도한 인물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83년에 황태자 부부가 오키나와를 제차 방문하자 해양박람회 때 만났던 황태자를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해양박람회 오키나와관에서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황태자의 발언에서 드러나는 오키나와 역사에 대한 깊은 학식은 솔직히 경복할 정도였다. … 아마도 공부와 진강(進講)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왕도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단지 그 ‘진강’을 위해 시종에게 감시당하면서 무보수로 협력할 ‘충성심’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나 ‘의문스럽다’는 것은 ‘전무하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강을 거절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며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기묘하게 깃들여 있다”(「皇室のこと」, 『沖繩タイムス』, 1983. 9. 23: 『大城立裕全集 第13巻 評論・エッセイⅡ』, 勉誠出版, 2002, 206쪽). 오시로는 천황(제)에 대한 오키나와의 양가적인 감정과 거리를 토로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15 鹿野政直, 『沖繩の戦後思想を考える』, 148쪽.

16 5월에는 오키나와현 원수폭 금지 협의회(沖繩原水協) 및 오키나와현 교직원 조합(沖教組), 전 오키나와군 노동조합(全軍労) 등 각종 단체들이 황태자 방문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황태자의 방문을 한 달 정도 앞둔 6월에는 마부니(摩文仁) 언덕 일각에 ‘황태자 오키나와 방문 저지’, ‘천황 규탄’이라 쓴 붉은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더욱이 6월 25일에는 가마가사키 공투회의(釜ヶ崎共闘会議) 간부가 오키나와 시내 미군기지 앞에서 분신자살했다. 그는 “황태자 암살을 기도했지만 정세를 보아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 따라서 죽음을 걸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항의하다”는 말을 남기며 죽었다. 당시의 황태자 암살 계획에 대해서는 友田義行, 「目取真俊の不敬表現: 血液を献げることへの抗い」(메도루마 숲의 불경표현: 혈액 헌납 행위에 대한 저항),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4), 2011. 3, 154쪽 참조.

오키나와 방문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퍼포먼스를 통해 연출된 하나 된 ‘일본’은 결국 화염병 투척이라는 ‘불온’한 폭력으로 인해 얼마간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었다. 삼엄하다 못해 공포스러운 경비, 그리고 그 틈새를 비집고 분노의 시위를 해 보인 화염병 테러는 천황에 대한 오키나와의 여론을 무엇보다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화염병을 던진 한 남성은 재판소에서 히메유리 여학생들로부터 “복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다.¹⁷ 이렇듯 오키나와는 여전히 전쟁이라는 과거의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는 황태자 부부가 오키나와의 비극을 애도하고 묵념하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다짐하는 것과는 층위를 달리하는 경험이자 고통이었다.

테러라는 폭력이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결정적인 행동이듯,¹⁸ 황태자에 대한 화염병 테러는 말 그대로 교환 불가능한 양자의 관계가 부른 사건이었다. 군정하의 오키나와가 본토 복귀를 회구한 것은 미군 기지와 관련된 갖가지 갈등과 폭력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본토 복귀 과정에서 이들 문제는 미봉되거나 외재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본토는 오키나와를 성급하게 포섭하여 하나 된 ‘일본’을 구현하고자 했다. 화염병 테러는 본토와 오키나와가 상상하는 ‘일본’이 서로 어긋나 있음을 무엇보다 극명하게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화염병 사건으로 기억되는 황태자 부부의 첫 번째 오키나와 방문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83년, 두 사람은 다시 오키나와를 찾는다. 이번에는 나하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9회 헌혈운동추진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오키나와에서는 또 다시 철저한 사상 검열과 신원 조사, 그리고 정신이상자에 대한 특별 감시가 이루어졌지만 특별히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헌혈운동추진국민대

17 도미야마 이치로 지음, 임성모 옮김, 『전장의 기억』, 이산, 2002, 110쪽.

18 장 보드리야르, 「테러리즘의 정신」, 『아부 그라이브에서 김선일까지』, 생각의나무, 2004, 272쪽.

회와 천황가의 관련이다. 헌혈운동추진국민대회는 후생성(厚生省)과 각 지방 정부, 그리고 일본적십자사의 협찬하에 1965년부터 매해 열리는 ‘사랑의 혈액돕기운동’(愛の献血助け合い運動) 행사의 일환이다. 이 대회를 후원하는 일본 적십자사의 명예 총재는 1947년부터 황후가 맡고 있다. 1960년 황후가 헌혈 운동을 소재로 지은 와카(和歌) 두 수가 ‘헌혈의 노래’(献血の歌)로 만들어져 매 대회마다 제창되고, 1976년 제12회 대회부터 황태자 부부의 참석이 정례화된 것에서 보듯이 헌혈운동과 천황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1983년 황태자 부부가 오키나와를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일이었다.¹⁹

문제는 ‘헌혈’이라는 용어와 행위가 어떠한 문맥에서 만들어져 전후로 까지 연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헌혈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전쟁 중의 일이며 수혈용 혈액을 장기간 보존하는 기술 또한 전장을 지지하기 위해 강구된 것이었다. 혈액 기증의 역할은 후방에 있던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 부과되었다. “총후의 여성의 혈액이 제일 전선에 있는 병사들의 목숨을 구한다”(銃後の女性の血液が第一線の兵士の命を救う)는 당시의 선전 문구는 전시하의 여성들이 헌혈운동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는 신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²⁰ 이처럼 전시 체제하에서 만들어진 여성과 헌혈이라는 관련 구조는 황후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더해 전후 사회로까지 이어져 1980년대 오키나와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이 헌혈운동추진국민대회 이면에 내장된 정치적 기획, 다시 말해서 전전의 군국주의 아래 뺏어진 여성과 헌혈, 그리고 황후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메도루마의 소설 「평화거리」는 우타의 차남의 입을 빌려 “전쟁에서 그만큼 피를 흘렸는데 무슨 헌혈대회를 한단 말이야”라며 망각되고 은폐된 국가주의의 폭력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설은 “봐봐, 앞전 해양박람회 때에 히메유리의 탑에서 황태자 전하와 미치코 황태자비에게 화염병을 던져서 큰 일이 난

19 友田義行, 「目取真俊の不敬表現: 血液を献げることへの抗い」, 156~157쪽.

20 友田義行, 「目取真俊の不敬表現: 血液を献げることへの抗い」, 157쪽.

적이 있었잖아”라고 지난 경험을 불러내며 천황과 오키나와 사이에 잠복하고 있는 갈등과 폭력, 소요와 반란을 예감하고 있었다. 1975년의 황태자 부부에 대한 화염병 투척과 소설 속의 우타가 벌인 인분 투척을 중첩시켜 읽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겹쳐 읽어야 마땅한지도 모른다.

4. 메도루마 숲의 응전: 전쟁을 사는 몸, 우타

메도루마의 「평화거리」에는 현실에 육박하는 입장감(臨場感)과 긴박함이 있다. 황태자 부부의 두 번에 걸친 오키나와 방문 흔적이 소설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번 인용되는 신문 기사나 황태자의 발언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오키나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평화거리」에는 오키나와의 현실이 명료하게 반영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도래하지 못한 현실에 대한 희구와 욕망이 교차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다음과 같은 장면일 것이다.

그것은 우타였다. 차 문에 몸을 부딪치며 두 사람의 모습이 비치는 차창을 큰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있다. 백발의 얼룩진 머리카락을 산발한 원숭이 같은 여자는 우타였던 것이다. 앞뒤의 차에서 뛰쳐나온 다부진 남자들은 우타를 차에서 떼어내더니 순식간에 황태자 부부가 탄 차를 몸으로 에워쌌다. 기모노 끈이 풀려 앞섶이 헤쳐진 채 길바닥에 나동그라진 우타 위로 사과리 재킷을 입은 남자와 공원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부랑자 같은 남자가 덮친다. 양쪽 팔을 붙잡혔음에도 우타는 늙은 여자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힘으로 날뛰었다. 입에서 피와 침을 흘리며 끝까지 버티고 울고 불며 저항하는 우타를 가주는 보았다. 개구리처럼 다리를 벌리고 버둥대는 비쩍 마른 다리 사이로 황갈색의 오물로 범벅된 열은 음모와 벌겋게 짓무른 성기가 보인다. …

두 사람이 탄 차가 허둥지둥 떠난다. 웃음을 짓는 것도 잊어버린 가주는 겁먹은 표정으로 우타를 보던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두 개의 황갈색 손도장이 찍혀

있던 것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두 사람의 뺨에 찰싹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실소를 수상하게 여겼는지 조수석에 앉아 있던 노인이 차를 세우고 내린다. 창문을 보고 새파랗게 질린 그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창문을 닦는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 점잖은 노인은 차를 따라 비틀비틀 달리며 턱시도 소매로 땀을 닦았다. 새카만 고급차는 비웃음과 향긋한 냄새를 남기고 시민회관 주차장으로 사라졌다.²¹

황태자 부부의 뺨에 찰싹 들러붙듯 차창에 찍힌 우타의 ‘황갈색 손도장’, 그리고 ‘열은 음모’와 함께 드러난 ‘벌겋게 짓무른 성기’는 숭고하고 존엄한 천황가의 권위를 단숨에 무력화시킨다. 언어와 기억을 반쯤 잃어버린 치매 노인의 비정상적인 신체는 통상적인 규제의 범주로부터 벗어난 예외적인 신체에 다름 아니며, 이 예외적인 신체로 말미암아 천황가의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단번에 파탄이 나고 만다. 작품의 배경이 된 헌혈운동추진전국대회는 일종의 관제 이벤트로서 국가 구성원의 신체와 사상을 예외 없이 균질하게 통합하고 훈육하는 정치적·사회적 수단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메도루마가 시도하고자 한 것은 규율과 감시의 대상인 개인이 역으로 천황이라는 상징과 국민국가적 상상력에 균열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다. 「평화거리」에서 우타를 치매를 앓는 환자로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정신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신체를 가진 우타는 국가와 천황을 모독하고 질서를 위반해도 달리 교정할 방도가 없으며 끝까지 천황을 위협하는 신체로 남는다. 방 안에 감금되어 있던 우타를 풀어준 손자 가주 역시 마찬가지다. 가주 주변에는 할머니의 감금을 강요하는 카키색 사과리 재킷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늘 따라다니는데, “소학교 5학년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몸”을 한 가주는 “물총새 부리에서 도망치는 작은 물고기”처럼 보란듯이 남자의 감시망으로부터 도망친다. 이처럼 우타

21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新神繩文学』 70号, 1986. 12(인용은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影書房, 2003, 152~153쪽).

와 가주는 국가에 반역하고 탈주하는 몸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타의 행동을 단순히 치매 노인이 저지른 비이성적인 병리적 행동으로만 해석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타의 오물 투척 테러는 치매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었다. 우타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녀가 살아온 전쟁과 전후의 경험이었다. 전쟁 중에 남편과 장남을 잃은 우타가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대충 짐작이 가지만, 작품 속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일절 드러내지 않는다. 그녀의 가장 친한 이웃 상인인 후미(フミ)만이 유일하게 우타가 전쟁 중에 장남 요시아키(義明)를 잃었다는 것을 들었을 뿐이다. 방위대에 끌려간 남편의 소식도 모른 채 동굴을 전전하다가 장남마저 잃어버린 우타의 기억은 좀처럼 언어화되는 일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기억도 풍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가 치매를 앓게 된 시점에 전쟁의 기억과 언어는 분명하게 다시 돌아왔다.

우타는 양 손으로 귀를 막고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작은 몸을 더욱 작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

가주는 가만히 우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는 갑자기 가주의 손목을 세계 잡아채듯 하더니 가주를 땅에 넘어뜨리고는 그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갠다.

“왜 이래, 할머니.”

일어나려고 발버둥쳤지만 우타는 믿기 힘든 힘으로 가주를 누르고 있다.

“조용히 해. 병사가 온다고.” …

“할머니, 병사는 이제 오지 않아요.”

잠시 시간을 보낸 뒤 가주는 부드럽게 우타의 손을 쓰다듬으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우타는 입을 다물고 몸을 떨고 있다. 뭔가 따뜻한 것이 가주의 등을 적신다. 가주는 손을 뒤로 뺀어 우타의 다리를 더듬어 보았다.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할머니, 집에 가요.”²²

“이봐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

“밀감을 어디에 가져가시려고요.”

“밀감을 얼른 요시아키에게 먹이지 않으면 안 돼.”

아연실색한 세이안(正安)은 손을 놓고는 어머니 우타를 바라본다. …

“어머니, 요시아키는 벌써 40년 전에 죽었잖아요.”

세이안은 뒤에서 우타를 끌어안아 일으켰다.

“거짓말 하지마, 요시아키는 안바루 산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고.”

우타가 자꾸 보챈다. … 우타가 잠들자 세이안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는 방문에 열쇠를 채우기 시작했다.²³

치매를 앓기 전에는 입 밖으로 나오는 법 없이 억압되어 있던 전쟁의 경험과 장남의 존재는 기억과 언어가 모두 질서를 잃은 순간 역설적으로 언어화된다. 문맥도 없고 상황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작스럽게 언어화되는 우타의 전쟁 기억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고 불온할 수밖에 없었다. 카키색 사파리 재킷을 입은 남자가 가주 주변을 맴돌며 겁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가주의 아버지이자 우타의 차남인 세이안이 직장 상사로부터 우타의 감시를 단단히 부탁받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다.

관리와 감독의 대상은 치매 노인과 같은 우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황태자의 방문을 앞두고 몇 개월 전부터 “경찰은 황태자가 통과하는 도롯가의 전 세대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근무처, 사상이나 정당 지지까지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신문은 ‘과잉 경비’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항의성명과 몇몇 과도한 경비 사례를 소개하였고, “황태자 부부의 경비를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길가의 불상화나 자귀나무를 무참하게 잘라버린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포위망처럼 펼쳐진 전방위적인 감시와 통제가 황태자 부부에 대한 완벽한 환영과 안녕을 위해 존

22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97~98쪽.

23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139쪽.

재하는 장치임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작품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신문 보도는 노골적인 감시와 통제 체제를 후경에 감추고 마치 처음부터 오키나와가 황태자 부부를 환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있다.

8년 만에 현민(県民)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황태자 부부를 보기 위해 길가를 메운 주민들의 눈이 일제히 쏠렸다. 인파가 크게 출렁이더니 환영의 작은 깃발이 펄럭였다. … 이토만(糸満) 가두에서도 환영 인파는 끊이지 않았고 황태자 부부의 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일장기 깃발을 든 주민들은 길가를 가득 메웠다. 차 안의 황태자 부부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손을 작게 흔들며 주민들의 환영에 답했다.²⁴

‘환영의 작은 깃발’의 펄럭임과 황태자 부부의 화답은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과 분열을 말끔히 지우고 화해와 통합을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적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도록 만드는 이 같은 패전트(pageant)는 ‘우치난추’ 오키나와 사람을 비로소 ‘일본국민’으로 조형하고 포섭하는 상징적인 의용(儀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우타의 오물이 개입한다. 마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기억과 경험을 소환하듯이 그녀의 배설물은 황태자 부부의 얼굴에 손도장을 남기고, 그것은 위태로운 모양새로 겨우 ‘하나 된 일본’을 연출하고 있던 환영 분위기를 단순히 전복시키고 만다. 우타의 오물 투척이 있고 난 뒤 인파 속에서는 곧장 “눈앞의 혼란과는 어울리지 않는 음미(淫靡)한 웃음이 새어나”오고, 그것은 또 “낮은 속삭임의 포자들”이 되어 “여기저기 훑날리더니 금세 주변을 감염시킨”다. 이 기묘한 풍경은 천황이란 인물을 정점으로 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 장치가 적어도 오키나와에서는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설령 동의를 얻었더라도 거기에 내재된 불편함은 언제든지 지배 장치를 역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역습의 계기를 우타가 체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몸이 바로 ‘전

24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136쪽.

쟁을 사는 몸'이기 때문이었다. 황태자의 방문을 앞두고 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두려 하는 행위는 이야기되어서는 안 되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되는 기억을 침묵 속에 봉인하려는 힘의 발동에 다름 아니다. 감금된 방 안에서 나온 우타의 일격은 말을 빼앗긴 기억이 '지금 여기'라는 장(場)에 회귀하려는 힘의 발현이었던 것이다.²⁵

5. 지역의 시차(時差)와 시차(視差)

황태자에 대한 '불온'한 상상과 행위를 해 보인 것은 비단 우타만이 아니었다. 우타의 손자 가주는 “할머니를 감금시킨 저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떻게든 저 두 사람[황태자 부부]이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고민 끝에 그는 “두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 일장기를 흔들며 거리를 메운 어른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차를 기다린 다음 두 사람의 얼굴에 제대로 침을 뱉”어 보리라 다짐한다. 그날 가주 눈에 비친 황태자 부부의 얼굴은 “신선도를 잃어버린 오징어처럼 핏기가 없고 부어오른 볼에는 웃음 주름이 잡혀 있으며 토우와 같이 부석부석한 눈꺼풀의 작은 눈 틈 사이에서는 희미한 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가주가 실제로 본 두 사람의 얼굴은 엄마 하쓰(ハツ)가 가지고 있는 부인잡지 속의 사진보다 훨씬 늙어 있었고 보기 흉했다.

우타의 과거를 공유하고 있는 후미도 마찬가지다. 전쟁 중에 장남 요시아키를 잃은 것을 우타가 이야기했을 때, 후미는 그것을 “마치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한 일처럼 느꼈고”, 마음속으로 다시 그 이야기를 곱씹을라치면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나는 분명 배를 아파하며 요시아키라는 남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죽음도 목격한 것이다. 손끝에는 아직 요시아키의 눈꺼풀의 감촉이 남아 있다”고 후미는

25 鈴木智之, 『眼の奥に突き立てられた言葉の鉋: 目取真俊の〈文学〉と沖繩戦の記憶』, 晶文社, 2013, 48쪽.

생각할 정도였다. 우타의 상흔을 나누어 가진 탓인지 그녀가 돌발적인 행동을 일으켜 시장 상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면 후미는 우타나 상인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더욱 큰 어떤 것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알 수 없는 더욱 큰 어떤 것”이 무엇인지 작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후미의 “아버지와 오빠가 모두 천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군대에 끌려가 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대목을 보면, 후미의 분노의 대상이란 거역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국가적 폭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후미는 황태자의 오키나와 방문 당일에 평화거리에서 생선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혼자 거리로 나와 좌판을 연다. 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행위가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생선을 손질하는 칼이 황태자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었다. 이처럼 황족과 오키나와의 하나 됨을 연출하기 위해 배후에서는 권력의 억압적인 감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오키나와는 어느새 통제하는 신체와 통제받는 신체로 양분되기에 이른다. 그와 동시에 조종과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탈주하고 탈선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다.

검게 칠한 차체에 국화 문양을 장식하고 ‘지성’(至誠)이라 쓴 우익 선전차가 귀가 멍할 정도로 볼륨을 크게 높인 군가를 튼 채 비에 축축이 젖은 일장기를 걸고 눈앞을 지나간다. 오늘 1시에 황태자 부부가 오키나와에 올 터다. 후미가 살고 있는 이토만(糸満)에는 황태자 부부가 다녀가기로 예정되어 있다. 여기엔 마부니(摩文仁) 전쟁유적공원이나 예전에 화염병 투척 사건이 있었던 히메유리의 탑 등이 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경비가 깔렸다. 도로 여기저기에 경관이 서 있다. 오늘 아침 남편 고타로(幸太郎)의 화물차로 나하까지 갈 때 몇 번이나 검문에 걸린 후미는 짜증이 났다.

“한심한 녀석들이군. 셋 사람만이 아니라 내지 경찰까지 있네.”

정말이지, 뭐가 황태자 오키나와 방문 환영이야? 모두 옛날 아픔을 잊었나 보군. 후미는 뒤따라오는 자동차를 무시하고 천천히 나아가는 우익 선전차에

돌이라도 던져버리고 싶었다.

소토쿠(宗徳)도 그렇다. 전쟁으로 가족을 세 명이나 잃었으면서도 군용지 사
용료를 받아 돈이 잘 돌아가자 자민당 뒤통무니나 따라다니고.

어젯밤의 일이다. 구장(區長) 소토쿠가 일장기 깃발 두 개를 가지고 왔다.

“뛰야 이건?”

술이라도 마신 건지 붉은 얼굴을 번쩍이는 소토쿠를 후미는 차갑게 바라보
았다.

“내일 황태자 전하와 미치고 황태자비가 오시니까 모두 환영해야지. 깃발을
나눠주러 다니는 중이야.”

“내가 왜 깃발을 흔들어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기분 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기분?”

“황태자 전하를 환영한다는 기분.”

“환영? 넌 전쟁에서 형과 누나를 모두 잃었잖아. 참 잘도 환영할 마음이 드
는구나. 나는 네 누나 기쿠(菊) 상에게 아단(阿檀)나무 잎으로 만든 풍차를 받은
걸 아직도 기억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 언니는 여자정신대에 끌
려가 아직 유골도 찾지 못했어. 넌 그렇게 누나에게 귀여움을 받았으면서…”

“뛰야, 또 전쟁 얘기야? 나도 전쟁은 싫다고, 그치만 황태자 전하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 그것과 이건 다르지.”

“뛰가 달라. 네가 뛰라고 해도 난 환영 같은 거 못 한다.”

후미는 깃발을 거칠게 잡아채 마당에 내던졌다.

“맘대로 해.”

소토쿠는 화를 내면서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야! 그 썩을 깃발 가지고 돌아가.”

후미가 화를 냈지만 소토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맨발로 마당으로 뛰쳐나
가 깃발을 집어 든 후미는 그것을 네 등분으로 찢어서는 변소 속에 던져버렸다.

“저 녀석은 머리가 벗겨지더니 기억도 벗겨졌나봐.”²⁶

위의 인용문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시차가 존재한다. 일장기를 흔들며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황태자 전하'를 환영하자는 소토쿠와 황태자 역시 전범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후미는 같은 대상을 바라보면서도 큰 시차(視差)를 보이고 있다. 군용지 사용료로 얼마간 생활이 윤택해진 소토쿠에게 전쟁이란 이미 지난 일이다. 그가 어떠한 의도에서 일장기를 흔들다 한들 그것은 훈육된 신체의 자발적인 복종에 다름 아니지만 이미 전후를 살고 있는 그에게는 아무렴 좋았다. 이렇게 전쟁 기억이 벗겨진 소토쿠에 비해 후미는 “여자정신대에 끌려가 아직 유골도 찾지 못한 기쿠”를 기억하고 있다. 전쟁 이후를 살고 있는 소토쿠와 전쟁을 살고 있는 후미는 시간 감각으로도 큰 시차(時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시차는 오키나와 내부에서 분화를 거듭하며 일본에 통합되는 신체와 통합되지 못하는 신체, 혹은 통제하는 신체와 통제되는 신체를 양산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 우타나 후미와 같은, 혹은 가족과 같은 반란의 움직임들은 일어났다.

일장기를 찢어 변소 속에 던져버리는 후미의 행동을 마냥 허구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말해 메도루마의 「평화거리」가 현실에 육박하는 임장감과 긴박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이 장면 역시 1987년 10월에 일어난 지바나 쇼이치(知花昌一)의 일장기 소각 사건²⁷과 묘하게 중첩되기 때문이다. 지바나는 “오키나와 전투의 집단사 원인은 일장기와 기미가요, 천황에 의한 황민화 교육”에 있다고 말하며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걸고 일장기를 불태웠다”²⁸고 사건의 배경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오키나와에서 일장기란 오키나와 전투와 식민지 지배를 환기시키는 상징 자체가

26 目取真俊, 「平和通りと名付けられた街を歩いて」, 130~132쪽.

27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던 제42회 국민체육대회 소프트 볼 경기장에서 일장기와 기미가요 없이 경기를 실시하려던 요미탄손(讀谷村)에 대해 일본 소프트볼협회 회장은 강경한 태도로 반대했다. 결국 요미탄손은 회장의 의견에 따라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해야 했다. 이에 지바나는 “한 사람의 권력자에 의해 3만 명의 마을 사람들의 의지가 꺾이는 현실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일장기를 소각하게 되었다며 사건의 동기를 밝힌 바 있다(知花昌一, 『焼きすてられた日の丸: 基地の島・沖縄読谷から』, 社会批評社, 1996, 41~42쪽).

28 知花昌一, 『焼きすてられた日の丸: 基地の島・沖縄読谷から』, 42쪽.

며, 그것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여전히 폭력적인 사상 검열의 기제이자 강제적인 동일화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천황에 대한 언급과 비판이 실종된 본토의 정치 현장 및 의도적으로 천황을 낭만화하는 본토의 문화 코드는 매년 오키나와에서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 오키나와는 천황을 정점으로 한 순결한 일본의 시공간을 뒤흔드는 국가 내부의 타자를 자처했으며, 천황과 일장기, 기미가요를 통해 또다시 상상의 공동체를 공고히 하려는 일본의 퇴행적인 욕망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것은 단 한번도 ‘전후’라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는 오키나와의 시차(時差)에서 비롯된 것이자 ‘한 사람의 권력자’에게 끊임없이 전쟁 책임을 묻는 오키나와의 시차(視差)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6. 환역(幻域)에 자폐하지 않는 힘: 결론을 대신하여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황족을 다시 한 번 문학 공간에 불러들인 메도루마의 의도는 무엇일까. 적어도 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복귀 이후 오키나와를 포섭하는 본토의 정치에 배제와 억압의 천황 권력이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전후’의 종언과 ‘전후 이후’를 구가하던 1980년대의 일본은 물론이고 복귀 이후 경제적 성장과 함께 전장의 기억이 풍화되고 있던 오키나와 모두를 겨냥해 이 작품이 전쟁·전후 감각의 실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화거리」로 1986년 신오키나와문학상(新沖縄文学賞)을 수상한 메도루마는 다음과 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1987년 국민체육대회를 목전에 두고 반대파나 정신적 장애자들에 대한 사전 경비가 은연중에 시행되고 있었다. 문학에 사회적 현실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문학을 자신의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것도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두려워한 나머지 개인의 환역(幻域)에 자폐하는 것은 나의

문학관에 어긋난다.”²⁹ 이러한 그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거리」는 당시 개최 준비 중이던 제42회 국민체육대회(1987년)를 염두에 두고 발표된 작품이었다. 국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일장기와 기미가요로 사상을 검열하고 불온한 정신과 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횡행할 때, 메도루마는 이 소설을 통해 전후민주주의와 상징천황제가 공존하는 전후 일본의 모순과 뒤틀림은 물론, 여전히 폭압적인 방식으로 오키나와를 포섭하고 통제하는 일본의 지배를 날카롭게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 활동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환상’임을 알면서도 무기력하게 ‘환역’에 자패할 수는 없었다. 국가 질서에 순응하는 ‘온순한 몸’을 완성하기 위해 또 다시 오키나와의 신체를 교정하려는 강제성에 대응하기 위해 메도루마는 문학의 힘에 다시 한 번 기댔던 것이다. 표현의 금기인 황태자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표적으로 삼아 문학적 반기를 시도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³⁰

여기서 1960년대 초에 등장했던 후카자와의 「풍류몽담」과 오에의 「세븐틴」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조선특수’(朝鮮特需)를 누린 일본은 패전의 충격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났다. 1955년의 국민총생산은 전전의 수준을 넘어섰고 1956년에는 경제백서가 “더 이상 전후가 아니다”(もはや戦後ではない)라고 선언할 정도로 전후적 상황은 예상보다 빨리 종결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고도경제 성장이 시작되고, 자민당과 사회당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55년 체제가 출범하여 안정된 장기 보수정권이 성립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 가운데 1960년의 안보투쟁을 겪으며 불거져 나온 좌우 대립과 일련의 우익 테러는 전후 일본의 정치 과정과 경제 상황의 변화 속에서 풍화되거나 변질된 전후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

29 目取真俊, 「受賞のことば」, 『新沖繩文学』 70号, 1986. 12, 173쪽.

30 천황에 대한 메도루마의 문학적 반기는 「평화거리」 이후에도 거듭되었다. 1989년에 발표된 「1월 7일」(一月七日)(『新沖繩文学』, 1989. 12)은 실제로 쇼와 천황이 사망한 날을 배경으로 천황의 죽음에 일상의 섹스와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천황의 신성한 죽음에 일상의 욕구와 욕망을 삽입시킨 작가의 의도란 천황에 대한 조롱이자 야유, 경멸에 다를 아니다. 또한 「평화거리」 발표 후 약 10년이 지난 1999년, 메도루마는 다시 한 번 오키나와국제해양박람회를 위해 오키나와를 방문한 황태자 부부를 소환한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面影と連れて)의 ‘나’는 황태자 부부에게 화염병 투척을 기도한 한 남자를 회상하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본토의 정치를 노골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었다. 「풍류몽담」과 「세븐틴」은 그에 대한 응전이자 반기로서 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뒤의 전개가 결국 언론과 지식인들의 패배 선언으로 끝난 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다. 이후 문학 언어는 적어도 천황에 대해서는 규준에 맞는 이야기만 하겠다는 암묵의 약속과 함께 침묵의 길을 걸었다.

「평화거리」에 천황이 등장한 1980년대 중반의 오키나와도 유사한 배경을 가진다. 패전 후 27년에 걸쳐 본토와 단절되어 있던 오키나와는 복귀 이후 빠르게 일본으로 회수되어갔고, 특히 국제해양박람회와 같은 국가적 이벤트는 오키나와의 낙후된 인프라를 정비하고 경제적 성장을 꾀하는 발판이 되어 일본으로의 포섭을 한층 더 용이하게 했다. 이런 시점에서 황태자가 일본과 오키나와의 심리적·상징적 통합 기제로 작용했음은 앞서 지적한 대로다. 관광입현(觀光立県)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오키나와는 이후 관광 붐의 부침은 있었지만 ‘남국의 낙원’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고 그 가운데 전쟁과 미군기지의 현실은 종종 후경화되었다. 복귀 후 천황가의 전략적인 오키나와 방문이 있을 때마다 전쟁 책임과 전사자 위령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 문제는 이들의 신체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었지만, 권력의 감시와 규제와 더불어 오키나와에 분화된 여러 층위의 시차는 이 칼날을 무디게 만든 것이 사실이었다. 메도루마가 이미 20여 년 전 본토에서 패배하고 침묵한 천황이라는 금기를 문학 공간에 다시 등장시키고자 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위화감과 위기감 때문이었다.

한편, 1986년 발표 당시 오키나와에서 문학상을 수상하고 2003년에 간행된 단편소설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평화거리」를 본토의 문학계나 언론계가 특별히 주목한 경우는 없었다. 그 무렵의 본토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쓴 연애소설 『노르웨이의 숲』(ノルウェイの森)(講談社, 1987)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오늘날의 ‘무라카미 하루키 현상’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서늘한 고독과 낙차는 일본과 오키나와 사이의 간극을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 다시 「평화거리」를 읽어야 할 이유기도 하다.